

# 회원 보시금으로 10년간 장학금 전달

## ■ 불교방송 청취자 신행모임 화엄장학회

10년 동안 학인 스님과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해온 장학회가 있어 화제다.

화엄장학회(회장 본각)는 9월 12일 서울 흥제동 금장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학인 스님 8명과 어린이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화엄장학회는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장인 본각 스님이 95년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프로그램에서 <화엄경>을 강의 했을 당시 애청자들이 자

매월 가족법회 50여명 참가 스님·어린이 170명 수혜

발적으로 모여 창립한 신행모임. 회원은 50여명이다.

매월 한차례 가족 법회를 봉행한 뒤 십시일반 모은 보시금을 어린이들과 학인 스님들에게 지원한 것이 벌써 10년째다.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학인 스님은 120여명에 이른다. 또 불교의 미래를 위해 지급한 어린

이 장학금 수혜자도 50여명에 이른다.

특히 올 초에는 금장사 신도인 원광화 보살이 평생 모은 1억원을 기탁, 이를 기반으로 화엄오향 장학금을 신설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도 후원하기로 했다.

10주년 기념법회는 삼천사 주지 성은 스님의 특별 법문, 금장사 은평법당 어린이회원들의 바이올린 축하 공연, 선무 시범, 창립 멤버 8명 공로 패 수여 등의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



화엄장학회장 본각 스님(사진 오른쪽)이 학인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됐다.

금장사 주지인 본각 스님은 "화엄장학회는 기금도 없이 순수하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보시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며 "가족

법회로 시작해 지금도 50여명씩 꾸준히 법회에 동참하고 있는 회원들과 화엄장학회를 지켜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권양희 기자



### ■ 나눔의 저금통 신청

서울 관악구 봉천6동 우선주님 - 저금통 10개

### ■ 나눔의 쟁금

전남 장성군 (주)삼보기술공사 - 5만원

김민태 강봉식 강진재 강병도 강병재 조명희 장정자 최은경 하동규님

- 33만 7천210원  
총누적금액 22,780,680원

### ■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 ■ 나눠드립니다

####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세요.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 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정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 결식아동돕기 음악제 성황

영남불교대학 주최 시민 2000여명 참가 기금 1000만원 마련



오인영(영천초교 4반)어린이가 관객들 앞에서 색소폰을 불고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경산도량이 사찰을 떠나 시민들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9월 11일 경산 남천동에서 영남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 경산도량주지 대륜 스님, 경산시 백준호 부시장, 채종학 교육장을 비롯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식아동돕기 '참 좋은 가을 음악제'가 열렸다.

대구 MBC DJ 이대희씨의 사회로 열린 이날 음악제에는 에어로빅댄스,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오인영(영천중앙초등 4) 어린이의 색소폰 연주, 어린이가수 정선훈(성지초등5) 양의 무대가 이어졌다. 영남불교대학 금강합창단은 깊어가는 가을밤 경산시민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했다.

참 좋은 가을 음악제에는 특히 영남불교대 신도들과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가 빛을 발했다.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 봉사자들은 행사 수익금 전액(약 1천만원)을 결식아동돕기에 회향하기 위해 무대를 만들고 청소하는 것까지 모두 자원봉사

로 처리했고, 출연진은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

또 회주 우학 스님이 공들여 준비한 연꽃 사진과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 작품 등을 내놓았고, 연정서실 박영애, 혜산서실 장태제 선생은 동침한 경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가운을 써주었다. 전시무대 주변에는 오랭, 파전, 두부김치 등 기금마련을 위한 먹거리 장터도 생겼고, 경산병원 후원으로 경산시민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센터가 차려졌다.

회주 우학 스님은 "대구지역 결식아동수가 2만 5000명, 경산지역도 5000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행사가 겨울을 맞이하는 결식아동들에게 조금이라도 훈훈한 바람막이가 되어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 금강합창단의 찬불가 합창 모습.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이동자 보살이 서울시장 표창을 받고 있다.

# 불자들의 보시행 빛났다

단체·개인 서울사회복지대회서 무더기 표창

불교단체와 불자들이 전개하고 있는 '나눔' 운동이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적 공인을 받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빨래와 청소 같은 '작은' 봉사는 물론이고 무료급식, 목욕, 기도, 장의 봉사 등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보살행이 '만발'하고 있는 것.

이같은 활동은 서울사회복지협의회가 9월 14일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한 '2004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증명됐다. 이날 대회에서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택),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 불교사회봉사회(회장 김명순),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사)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웅) 등이 후원자, 자원봉사자, 종사자 등의 부문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사회복지협의회회장이 수여하는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16년간 무료재봉봉사, 무료급식, 수해복구지원, 병원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여 온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이동자(52)씨와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2만 6천여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해숙(33)

씨는 서울시장상을 받았다. 그리고 1992년부터 '심장병어린이 돕기 기금마련 자선음악회'를 개최해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5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보조해 준 불교사회봉사회도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의 대표적인 노인복지관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권기현(30)씨와 탑골문화학교 교사로 일하며 강의를 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신성규(79)씨는 서울사회복지협의회회장 표창을 받았다.

특히 2000여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과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는선우는 후원자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우리는선우 성태웅 이사장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불자들이 바로 이 상을 받아야 한다"며 "불교계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이 바로 부처님의 보살행"이라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현대불교신문을 이웃에 법보시

1천원으로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수 있습니다.

###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 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 ■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기부) 법륜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시십시오.

####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들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 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 자비의 현물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물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해 당부드립니다.

####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야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